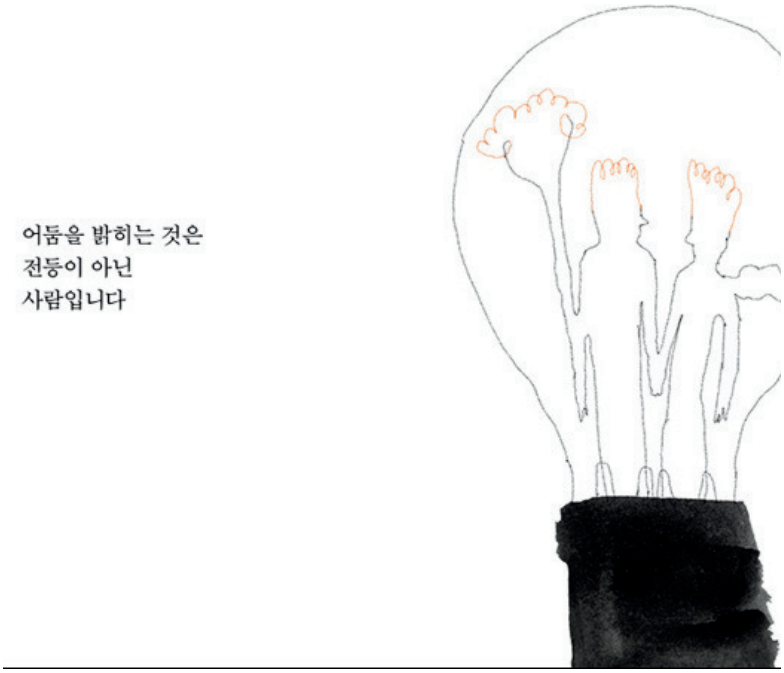
09월의 편지

푸르른지역아동센터 뉴스레터

2023년 09월호



세부 내용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른'입니다!

09월 특집호 : 체육대회 및 영상캠프

미리보는 10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른'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쉬이' 변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뭔가 큰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달라지겠구나, 변하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의 시간과 어른들의 시간은 다르고, 한 아이 한 아이의 시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더디고, 때로는 티끌만큼 변하는 아이들이 많은 센터에서는 늘 사건사고가 있고, 믿었던 아이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청소년의 시기를 '질풍노도'라고 하는 거겠지요. 자신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 같은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 '착각'이 아이들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어른'들에게입니다. 9월 한달 동안 저에게도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로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보호자께서 아이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 염려했습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 아이의 보호자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안계셨다면 솔직히 저 이녀석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거지만 절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사님 보면서 이번에도 또 목사님하고 함께 아이를 위해 견디고 지켜보고 도울 생각입니다. 같이 해 주실거죠?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호자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만약 아버님의 상황이었다면, 혹제 자식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면 전 가만히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아이를 붙잡기 위해서 꾹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오늘을 이겨내시는 아버님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의 보호자분과 제가 깨닫게 되는 건 결국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건 바로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어른'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른'입니다. 어떤 어른? 포기하지 않는 '어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09월 특집호 - 한지연 경주지회 연합체육대회

09월 특집호 - 영상캠프(꿈방팀)

미리보는 10월

9월,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3과 고3 아이들의 긴박감이 전달되는 한달이었습니다. 중3 아이들과 고3 아이들의 진학지도상담을 마치고, 그에 따라서 한명 한명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3 대부분은 인문계열 진학이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좀더 집중하기로 했고, 포항예고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아이에게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조정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3 아이들은 다들 수시접수를 하기로 하고, 함께 전공하고 싶은 학과를 정하고 그에 맞는 대학들을 리서치 하면서 준비를 돕는 한달이었습니다.
이런 바쁜 와중에서도 '제1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경주지회 연합체육대회'를 이웃하고 있는 8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들과 함께 정말 신나고 즐겁게 보냈답니다.
중고생들은 K예술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한예종'에서 다큐영상캠프도 참여해 그동안 준비한 다큐 영상을 점검받고 칭찬도 엄청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 달에는 인제 평화마을에서 상영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잘 마무리해서(현재까지 참여한 기관 6군데 중 최고라는 평가를 ㅎㅎㅎ)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고입을 위한 실기시험을 보는 중3 아동도 있고, 중3에게 아주 중요한(경주는 아직 비평준화지역)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매일 밤11시까지 함께 자습을 하면서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자말자 바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지라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계속 간식을 사주고 있답니다 ㅎㅎㅎ).
10월에는 일본아동복지세미나에 참석차 일본에 3박4일 갔다옵니다.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동안 센터에서도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추석 명절,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꿈을 방송하다 -

09월의 목저씨(목사+아저씨) 이야기

진정한 초능력!

요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숨겨진 초능력자들과 그 초능력자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가 여주의 대사를 통해 가슴에 쿵 하고 뭔가 남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 인스타 계정(goodseed1204)에 글을 올렸습니다('오늘의 한문장'). 이런 내용의 대사였답니다.

"초능력 그게 뭔데?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게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영웅이야?"
'무빙'이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쩌면 이 대사에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이야기 하면, 진정한 '히어로'는 '능력'이 뛰어난게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걸 응원해주는 사람이 진짜 '히어로'라는거죠.
전 이 대사를 들으면서 바로 우리 '행복히어로주주'님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초능력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공감능력자'가 있기를. 또한 제가, 여러분이 그런 '공감능력자'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경북 경주시 동천로39번길2
3층. 푸르른지역아동센터
(054)774-4453

푸르른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아 아이들을 섬기고자 합니다.